그리스도인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최근 이 시대에 마치 강력한 홍수처럼 이 나라를 뒤덮은 수많은 오류와 신성모독과 온갖 종류의 세속성을 영혼의 고통으로 애통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불경건의 수문을 여는 데 이바지한 여러 죄들 가운데, 가정 교육의 폐지를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지탱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무지와 오류이니; 이 영적 노예 상태로부터의 우리 해방의 첫걸음은 우리 눈이 열려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 사도행전 26:18.

사람들이 지식에 있어 아기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불쾌한 광경이니; 하나님의 신탁의 첫 원리를 스스로 배워야 할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 히브리서 5:12...

지식은 그토록 바람직한 성취여서, 마귀들조차 우리의 첫 부모를 시험하는 데 지식의 나무의 열매보다 더 매력적인 미끼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

이해력은 온 사람의 안내자요 조타수이니, 영혼의 고물에 있는 그 능력이라: 그러나 가장 노련한 안내자도 어둠 속에서는 실수할 수 있듯이, 이해력도 지식의 빛이 없으면 그러할 수 있다: 지식 없이는 마음이 선할 수 없고, 잠언 19:2; 삶도 선할 수 없으며, 영원한 처지도 안전할 수 없다, 에베소서 4:18.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6.

성경에서 세속성과 온갖 종류의 오류를 무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몸의 병은 흔히 머리의 무절제에서 그 근원을 두고, 실천에서의 과도함은 판단의 오류에서 나오니: 참으로 모든 죄에는 그 밑바탕에 무지와 오류가 어느 정도 함께 있다: 만일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각 죄에 대하여 사도가 그 큰 죄에 관하여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들이 모든 죄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는 것이요, 하늘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요, 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진노의 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 것임을,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용서받는다 하여도 그것이 그의 피보다 못한 값으로는 될 수 없음을 참으로 안다면; 죄는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라게 하고,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속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의 주된 계교와 방법 중 하나이니: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첫 부모를 대적하여 이겼으되, 사자로서가 아니라 뱀으로서, 우정의 모습 아래 자기 적대감을 행하고, 선의 모습 아래 그들을 악으로 유혹하였으며; 그렇게 그는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어둠의 계획을 수행해 왔으니, 속은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비참함과 사랑에 빠지고 자기 자신의 멸망을 포용하게 하였다.

온갖 종류의 오류를 막는 탁월한 해독제는 참된 신앙 위에 세워지고 정착되는 것이니: 참된 종교에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종교를 매우 잘 받아들이며; 영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은 무엇이든

쉽게 되어 버린다. 물 없는 구름은 어떤 바람에도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바닥짐 없는 배는 어떤 폭풍의 폭력에도 노출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에 대하여, 학식 있는 리베가 교부들의 오류에 대하여 한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오류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오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취함에 있어, 투르크인과 교황주의자들이 자기 종교를 취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이 사는 시대와 장소의 종교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가벼이 취한 것을 마찬가지로 쉽게 버린다.

땅은 잡초를 내는 데 있어 농부의 손이 그것을 뽑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산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기는 어둠의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다만 해의 부재일 뿐이요; 물도 차가움의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다만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일 뿐이다; 이는 이것들이 본성의 참된 산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영혼이, 몇몇 철학자들이 헛되이 상상하였듯이, "타불라 라사"로, 곧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얼룩도 없는 단순한 백지로 세상에 온다면, 선과 악을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요 어느 한쪽에 더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 처지가 얼마나 더 나쁜지를 명백히 드러낸다.

최근 이 시대에 마치 강력한 홍수처럼 이 나라를 뒤덮은 수많은 오류와 신성모독과 온갖 종류의 세속성을 영혼의 고통으로 애통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불경건의 수문을 여는 데 이바지한 여러 죄들 가운데, 가정 교육의 폐지를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지탱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무지와 오류이니; 이 영적 노예 상태로부터의 우리 해방의 첫걸음은 우리 눈이 열려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 *사도행전 26:18*.

자기 감독 아래 있는 이들의 어린 시절을 일찍부터 조미하기 위한 경건한 부모와 교사들의 진지한 노력이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지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그들에 대한 권위,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과의 계속된 함께함,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빈번한 기회로 인한—뿐 아니라,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열매로서 슬픈 경험을 통하여 발견하는 서글픈 결과들로도 넉넉히 분명하다.

여러분 앞에 증인의 구름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니, 그들의 실천은 이 의무에 대한 뛰어난 찬사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진지한 권면이기도 하였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본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그 믿음을 본받게 하듯이, *히브리서 11:4*; 아브라함의 본, 여호수아의 본, 솔로몬의 부모의 본,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의 본도 그러하니, 그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영혼을 몸만큼이나 돌보는 것이었고; 그들의 수고가 컸던 만큼 그들의 성공도 결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다.

복음의 이 정오에, 그토록 명백하게 명해지고, 그토록 자주 권면되며, 그토록 높이 격려되고, 주께서 모든 시대에 그토록 두드러지게 자기 복으로 인정하신 의무를 알리거나 설득하는 것이 주제넘

은 일 이상은 아니라고 여겨야 하겠으나, 다만 우리의 슬픈 경험이 이 의무가 최근 소홀히 여겨진 것보다 결코 덜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의무를 그 합당한 준수로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이중의 조언을 제안하도록 허락하라.

첫째 조언은 가장들 자신에 관한 것이니; 주께서 그들을 그 가정의 나머지보다 높은 자리에 두셨으므로, 그들도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력으로 그들 위에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식에 있어 아기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불쾌한 광경이니; 하나님의 신탁의 첫 원리를 스스로 배워야 할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 *히브리서 5:12...*

지식은 그토록 바람직한 성취여서, 마귀들조차 우리의 첫 부모를 시험하는 데 지식의 나무의 열매보다 더 매력적인 미끼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

솔로몬에게 주의 은총이 베풀어졌을 때, 그는 지혜보다 더 큰 자비를 구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거짓이 자기 자신의 심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열왕기상 3:5,9.*

이해력은 온 사람의 안내자요 조타수이니, 영혼의 고물에 있는 그 능력이라: 그러나 가장 노련한 안내자도 어둠 속에서는 실수할 수 있듯이, 이해력도 지식의 빛이 없으면 그러할 수 있다: 지식 없이는 마음이 선할 수 없고, *잠언 19:2*; 삶도 선할 수 없으며, 영원한 처지도 안전할 수 없다, *에베소서 4:18.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6.*

성경에서 세속성과 온갖 종류의 오류를 무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몸의 병은 흔히 머리의 무절제에서 그 근원을 두고, 실천에서의 과도함은 판단의 오류에서 나오니: 참으로 모든 죄에는 그 밑바탕에 무지와 오류가 어느 정도 함께 있다: 만일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각 죄에 대하여 사도가 그 큰 죄에 관하여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들이 모든 죄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는 것이요, 하늘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요, 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진노의 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 것임을,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용서받는다 하여도 그것이 그의 피보다 못한 값으로는 될 수 없음을 참으로 안다면; 죄는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라게 하고,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속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의 주된 계교와 방법 중 하나이니: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첫 부모를 대적하여 이겼으되, 사자로서가 아니라 뱀으로서, 우정의 모습 아래 자기 적대감을 행하고, 선의 모습 아래 그들을 악으로 유혹하였으며; 그렇게 그는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어둠의 계획을 수행해 왔으니, 속은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비참함과 사랑에 빠지고 자기 자신의 멸망을 포용하게 하였다.

온갖 종류의 오류를 막는 탁월한 해독제는 참된 신앙 위에 세워지고 정착되는 것이니: 참된 종교에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종교를 매우 잘 받아들이며; 영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은 무엇이든 쉽게 되어 버린다. 물 없는 구름은 어떤 바람에도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바닥짐 없는 배는 어떤 폭풍의 폭력에도 노출된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권하는 지식은 머릿속 지식, 단순한 사변이 아니니; 이것은 가장 악한 사람

안에도, 참으로 가장 악한 피조물인 마귀들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이 불완전한 생애의 가장 선한 성도도 이를 수 없는 정도로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내적이고 맛깔스러운 지식, 마음의 지식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논쟁할 수는 없었으나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저 순교자 안에 있었던 것과 같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신적 진리에 대한 영적 감각과 느낌이니, *히브리서 5:14*, 감각이 단련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에 대하여, 학식 있는 리베가 교부들의 오류에 대하여 한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오류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오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취함에 있어, 투르크인과 교황주의자들이 자기 종교를 취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이 사는 시대와 장소의 종교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가벼이 취한 것을 마찬가지로 쉽게 버린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내적 맛봄과 즐거움은 가장 불안정한 시대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 주는 뛰어난 보존제인 반면, 부패하고 불쾌한 원리들은 영적이고 건전한 것들보다 우리에 대하여 큰 이점을 가지니; 전자는 부패한 본성에 적합하고, 후자는 그것에 반대되며; 전자는 저절로 일어나고, 후자는 고통스러운 수고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리베가 「성경 비평」에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땅은 잡초를 내는 데 있어 농부의 손이 그것을 뽑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산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기는 어둠의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다만 해의 부재일 뿐이요; 물도 차가움의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다만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일 뿐이다; 이는 이것들이 본성의 참된 산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영혼이, 몇몇 철학자들이 헛되이 상상하였듯이, "타불라 라사"로, 곧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얼룩도 없는 단순한 백지로 세상에 온다면, 선과 악을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요 어느 한쪽에 더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 처지가 얼마나 더 나쁜지를 명백히 드러낸다.

자기 마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자 중에, 사탄의 흐리게 함이 그토록 쉽고 자유롭게 접근함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으랴?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그토록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의 가장 큰 부지런함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데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탁월함과 필요성과 어려움은, 그 성취에 비례하는 노력을 여러분 안에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가르치라, *잠언 4:7*; 그리고 숨겨진 보화처럼 지혜를 구하라, *잠언 2:4*.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우리의 둘째 조언은 가장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관하여 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것은, 비록 돌보아야 할 영혼을 가진 모든 개별 그리스도인에게 관계되지만; 부모와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는 이중으로 관계되니, 이는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무지로 인하여 이 의무를 다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은 자기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다하려 하지 않는다. 전자에게는 여호수아의 방법을 제안하니, 그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다음 자기 가정을 돌보았다. 후자에게는 다만 그 큰 날에 그 부모와 책임자들이 자기 자녀와 아랫사람들과 가질 그 두려운 만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만을 넌지시 말해 줄 것이니, 그때

에 그들의 감독 아래 있던 모든 이가 그들을 고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실패를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교회의 어느 시대도 우리 시대만큼 그토록 뛰어난 도움들을 누린 적이 없다. 복음의 각 침수 시대는 그 신조와 신앙고백과 교리문답과 개요와 신학의 모범들을 가졌으니, 이는 유별나게 유익하였다. 이러한 건전한 말씀의 형식들은(비록 오늘날 폄하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행할 일들의 요약으로 기록하신 이래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것의 지침서로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러한 축약된 체계들의 유용성에 관하여는, 이 시대의 한 학식 있는 신학자가 이미 너무나 많이 말하였으므로, 만족하기를 고집하지 않는 모든 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 논고들의 특별한 탁월함에 관하여는, 국내외에서 판단과 학식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이들이 그것에 준 뛰어난 증언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니, 이는 그것들 자체가 스스로의 칭찬을 그토록 많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금은 광택이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는 채색이 필요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도움들을 누리는 것을 뛰어난 자비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만 말하겠다(터크니 박사, *디모데후서 1:13*에 관한 그의 설교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이 논고들에 대하여 하찮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준 것과 같은 조언을 주겠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46*. 지금 독자가 누리는 유리함은 적지 않으니, 성경 본문이 전문 그대로 더해짐으로써 적은 수고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각 진리와 더불어 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으로, 오늘날 가나안의 언어를 말한다고 고백하는 이들 사이에 얼마나 큰 견해의 바벨이, 얼마나 이상한 언어의 혼란이 있는지를 생각할 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지자의 그 조언이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 합당하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으니, *이사야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새벽 빛이 없나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이 논고들의 존경할 만하고 학식 있는 작성자들이 각 진리에 성경의 증거를 붙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은, 백성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지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이제 그 성경 본문들을 옮겨 적는 상당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라틴어판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판본에서 그토록 풍성하여, 독자를 크게 당혹스럽고 낙담하게 하였던) 그 큰 불편함과, 성경의 오기 인용을 피하기 위함이니, 가장 하찮은 독자라도 온전한 말씀을 가짐으로써, 인쇄자가 특정 본문을 인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어떤 오류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 함이며; 부분적으로는, 각 증거를 찾아가는 수고를 피하기 위함이니, 그것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각 증거를 찾아가는 수고는 기꺼이 감당하되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기억을 돕기 위함이며;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성경의 통상 주제집으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말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 책 안에서 각기 그 표제 아래 모아져, 그로써 서로에게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의 유익은 많고 크니; 영적 지식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 더 쉬워지고, 이 시대의 무지는 더욱 핑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그토록 흠모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에, 혹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의 돌봄 아래 있는

영혼들에 대한 어떠한 긍휼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어떠한 배려라도 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한 존중이라도 있다면, 후대에 자랄 수 있는 이 지식의 씨앗들을 뿌리기에 힘쓰라. 이 일에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이것이 다음의 간절한 기도이다,

Henry Wilkinson D.D. A.M.P.

John Fuller

Edward Perkins

Richard Kentish

James Nalton

Ralph Venning

Alexander Pringle

Roger Drake

Thomas Goodwin

Jeremiah Burwell

William Wickins

William Taylor

Matthew Pool

Joseph Church

Thomas Watson

Samuel Annesley

William Bates

Has. Bridges

John Jackson

Thomas Gouge

John Loder

Samuel Smith

John Seabrooke

Charles Offspring

Francis Raworth

Samuel Rowles

John Peachie

Arthur Jackson

William Cooper

John Glascock

James Jollife

John Cross

William Jenkin

Leo. Cooke

Obadiah Lee

Samuel Clerk

Thomas Manton

John Sheffield

Samuel Slater

Thomas Jacomb

Matthew Haviland

William Whitaker

George Griffiths

William Blackmore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